

경남정보대 주문식 교육·취업 성과 ‘눈길’



1 경남정보대학교 전경 2 센텀캠퍼스 전경

경남정보대학교는 지난 1965년 설립된 부산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전문대학이다. 56년간 11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하며 직업 교육 선도대학으로서 굳건한 위상을 지켜왔다. 경남정보대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냉정캠퍼스와 센텀캠퍼스를 중심으로 입학이 곧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정을 충실히 준비했다. 또 최근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120여억원의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등 대학 특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만들어 취업시키는 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엘앤에프, 에스티로더, 약손명가, 준오헤어, 화미주헤어 등 유명 기업과 취업 보장 주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정보대는 최근 3년간 약 700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대기업에 취업시켰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직격탄 속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는 특히 LG디스플레이 53명, 동국제강 25명, 삼성SDI 18명, 엘앤에프 18명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졸업생들이 잇달아 합격해 경남정보대의 직업 교육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남정보대는 해외 취업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 취업 프로그램 참가 학생 전원이 미국 소재 기업에 합격해 현재 근무하고 있다. 향후 대학의 국제교류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정보대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과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7개 학부, 34개 계열 및 학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될 7개 학부는 ▲ 첨단미래학부 ▲ 공간디자인학부 ▲ 문화콘텐츠학부 ▲ 보건의료학부 ▲ 커리어학부 ▲ 관광외식학부 ▲ 라이프케어학부로 학과 특성화와 학과 간 융합교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최근의 산업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위해 반도체과와 반려동물케어과 2개 학과를 신설했다.

경남정보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2천247명) 중 98.3%인 2천209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험생 1인당 최대 5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계 특별전형과 특성화고 특별전형(항공서비스과, 군사학과 제외)은 교과성적 80%, 출석 20%로 선발한다. 학생부 최저등급 지원 제한이 없으며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면접점수 비중이 높은 대학 자체 특별전형으로 139명을 모집하며, 특성화고 등학교와 협약된 학과는 연계 교육 전형으로 221명을 모집한다. 대학 자체 특별전형은 교과성적 40%, 출석 20%, 면접고사 40%로 선발한다. ▼

